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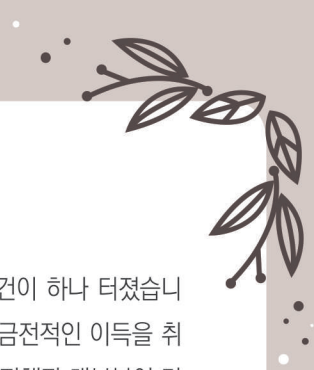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Q• Love and Use

신부님, 안녕하세요? 몇 달 전 뉴스를 통해 'N번방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온라인상에는 청소년들이 시청하면 안 되는 부적절한 성적 영상물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늘 존재했구요.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불법으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더라고요. 주요 용의자 모두에게 아주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고요. 이전부터 암암리에 유통되던 음란물 문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 N번방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던 지난봄, 모두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성 착취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N번방 운영자, 즉 가해자들은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개인 정보를 얻어 냈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지요.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개인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기에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얻은 피해자들의 영상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유폐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근친, 강력 범죄, 약물 중독, 인신매매 등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기에 국민들은 더욱 경악했지요.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일명 ‘박사’ 조주빈은 한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성적 취향이 크게 없다. 소비자들의 취향이다. 내 자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닌 소비자들의 취향이 만든 결과물이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번 범죄는 N번방을 운영한 이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면서 더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모든 이들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떠올려 봅시다. 창조 사업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느님의 영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들어 있기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숨결을 지니고 있기에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하느님을 동경합니다. 고독 속에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합니다.


인간을 대하는 방법은 다른 물건을 대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윤리 대원칙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Love People and Use Things!’ 해석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이용하라!’가 되겠죠? N번방 사건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한 데에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을 착취하였지요. 돈과 물질을 사랑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성성과 여성성은 선물입니다. 이 성은 단순히 육체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은 인격입니다. 그렇기에 성적인 폭력은 무척이나 큰 상처를 남기고,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인격에 상처를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은 많은 여성들에게 육체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Love People and Use Things! 이 말을 통해 우리의 삶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다른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나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세상에는 'I Love You'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I Use You'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랑이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안에 배려, 헌신, 희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이 말을 남용을 넘어 오용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사랑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곤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 등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에 맞추어 변화되었고, 사회는 큰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화상 회의와 동영상 교육 등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의사소통도 가능해졌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두운 면도 함께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러한 매체를 잘못된 욕망의 분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좇아 많은 시간을 가상의 공간에서 허비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성적인 욕구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로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도 있고 사랑할 힘도 얻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욕망을 충족하려 할 때, 우리 사회는 불행해집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 나는 절제력과 식별력을 가지고 미디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